

# 與 “민생법안 위해 법사위 추가 개최 필요”

법사위 계류법안 일부 의결  
상정안건 전체 5% 불과  
공수처·국정원법 등 산적  
지도부, 야권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22일)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일부 의결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법사위를 추가로 열어서라도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야당 탓에 임시국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임시국회 공전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관련법과 국정원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입법이 시급하다. 민생법안 처리도 온 국민이 바라는바”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억지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빈손 국회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임시국회는 개혁과 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해 소집한 임시국회다. 제1야당 한국당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시급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여야 합의의 오늘 어렵사리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만, 상정안건은 35건으로 계류된

전체 안건의 5%에 불과하다”며 “민생·개혁입법의 가뭄 해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긴급 민생법안이 다 빠졌다”며 “도대체 타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들을 법사위가 무슨 권리로 자판기에서 물건 뺏듯 한단 말인가, 남은 이틀동안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추가 개최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그러나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논리를 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올해 국정과제 법안 122건 중 입법이 이뤄진 법안은 11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정치·총위병정치로 인민재판식 여론정치만 요란하더니, 정작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태만히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임종석, UAE와 관계 복원위해 방문”

靑, 야권 추측성 의혹 부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 “이전 정부에서 UAE와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얘기를 여러 곳으로부터 들었다”며 “UAE와 독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한 원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UAE 측에서 입 실장 방문 전 서운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는 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쪽에서 들었

다”며 “입 실장의 방문은 우리 군부대에 대한 위문 방문이 목적이었고, 간 김에 그런 관계까지 고려해 왕세제와 만나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동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전수주와 관련된 것으로 안다”며 “그분이 왜 갔는지 자세히는 모르나 그쪽 일을 해본 경험도 있는 분이니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입 실장 방문은 대규모 원전을 수주한 나라임을 고려할 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모든 추측성 기사나 야당 주장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 우원식 “개헌발의 대통령이 할 수도”

민주 최고위... “한국당 특위 연장 당론은 꿈수”

연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민의를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개헌 발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발언 및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힌 뒤 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게 만들어놓고 무작정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꿈수”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난 대선에서 개헌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약속한 것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위를 연장하는 한국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개헌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 없는 특위 연장은 시간과 돈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방선거 때 개헌에 소극적인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일방 소집에 대해 “안건도 없이 국회법조차 어기면서 운영위를 마음대로 소집해도 되는가. 어찌 운영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며 “청와대 관계자에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디 있느냐’며 카메라 앞에서 들어가면서 조리돌림을 하는 소도 서슴지 않았다. 뻔뻔하고 함심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민노총 당사 점거에 “어찌하오리까”

한상균 석방 요구 난감...근로시간 단축법 협상도 난항  
“단호 대응”vs“원만 합의” 의견분분...秋 “일단 지켜보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관계 설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양대 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당사 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등에 대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일방적 주장에 끌려다니길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동계가 갈등 끝에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

시에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오전 비공개 최고 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당사 점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다수는 “우리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민주 세력으로서 그들을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고, 추미애 대표 또한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는 다만, 민주노총이 음식 및 생활필수품 반입을 위해 다른 노총 관계자들을 당사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추가 총동을 우려, 출입은 불허하되 민주당 측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여당과 노동계 사이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법과 연계된 휴일근무수당 합중을 협상 과정에서 균열이 나타났다.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협상 과정에서 재계의 요청을 수용해 휴일·연장근로에 중복합중을 적용하지 않는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산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중복합중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중재안’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당사 점거와 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 요구까지 겹치면서 여당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동계의 지니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권이 교체된 만큼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노총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다가 여러 부분에서 정책 실패를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노동계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노위 소속의 한 의원은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재계를 위한 노력을 쏟기보다,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합의안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이춘석 사무총장은 농성 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만나 퇴거를 요청했지만,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 권순일 선관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이날 인사청문회는 정회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도 채 진행되지 않은 채 끝났다. 여야 의원들은 권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흠결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앞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도덕적 흠결은 없어 보였다”며 “당투기에 대한 의혹도 소멸이 다 됐다”고 여야 의원들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관에 공시 취임하면 대법관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호선하는 관례에 따라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임기는 2020년 9월까지다.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16(화)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음악 학 과	○	
예능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23(화)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7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신학과(D.C.S.)	15	
		통합예술통신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2017. 12. 16(토) 오후 2:4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임학원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